



장금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 노래하는 돌 이따이푸가 들려준 아름다운 노래

브라질하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이구아수 폭포, 아름다운 항구 리오테자네이로, 아마존 강, 삼바 축제, 세계 최강의 축구팀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지난 3월 정말 길고 긴 비행시간과 여정을 거쳐 브라질의 이따이푸 댐을 만나게 되었다.

이따이푸 댐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이구아수를 관광하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이 부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곳으로 이구아수 폭포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따이푸 댐은 얼마 전에 중국의 산사 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규모나 발전량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했었다. 지금은 규모 면에서 산사 댐에 밀려났으나 발전량은 아직도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수문을 모두 개방하면 세계 최대의 폭포수인 이구아수 수량의 40배가 된다고 한다. 20개의 터빈에서 발전되는 전기의 반은 브라질, 반은 파라과이 소유이다.

이 발전소에서 얻는 전기는 브라질 전국 전기소요량의 25%를 감당한다. 파라과이는 자기 몫의 10%만으로 전국 소요량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노래하는 돌’이란 뜻의 이따이푸 댐에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 우선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역사적 관계를 조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현재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륙에 있어 바다를 갖고있지 못하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 땅이 지금보다 훨씬 커서 바닷가까지 그 영역을 뻗치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훨씬 강대한 국가였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의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인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함께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정책은 남미의 식민지에 어떤 산업도 발전시키지 않고 목재, 광물, 곡물 등 원자재를 수탈해 가기만 하는 것이었다.

이에 파라과이는 자체적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불편해 하던 유럽국가들은 비겁하게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부추겨 파라과이와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 처음에는 파라과이가 이겼으나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유럽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게 패전하고 말았다.

이 전쟁으로 인해 국토의 대부분, 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안과 곡창지대를 모두 빼겨버리고 게다가 14세 이상의 남자 대부분(90%)이 전사하고 말았다. 이것이 약 100년 전의 일이고 아직 이로 인해 파라과이는 극도로 피해를 지

금까지도 그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자들이 귀해져 남자 한 명에 여자가 5~10명, 심지어는 20명까지 같이 살게 되고, 자연히 모든 노동과 경제 살림은 여자들의 몫이 되었다. 남자는 칼 하나 차고 국방을 지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한다. 길을 가더라도 여자가 앞에서 보따리를 지고 아이들을 챙겨가고, 남자는 칼 하나 달랑 차고 뒤따라 간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파라과이에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이파이푸 댐은 정확히 두 나라 사이를 흐르는 파라나강의 한 지점으로 천연적으로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에 아주 적합한 최고의 지점이었다. 두 나라의 협력이 없이는 댐을 건설할 수가 없다. 오랜기간 협상을 거친 두 나라는 멋지게 협력해 세계 최고의 발전댐을 건설했다.

우선 두 나라는 이 댐에서 생산되는 모든 혜택, 특히 전기를 정확히 반반씩 나누기로 합의했

다. 브라질이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는 대신에 자금이 없던 파라과이는 노동력을 대거 제공했고 모자라는 자금은 자기 몫의 전기의 90%를 브라질에 팔아서 갚아나가기로 했다(결국 최근에 모두 갚았다고 한다).

또 이파이푸 댐에 종사하는 이 지역 사람들이 완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하고 생활 기반 시설들을 세워 주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브라질인이나 파라과이 사람으로 불리지 않고 이파이푸 사람으로 불린다. 신분증도 이파이푸 사람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쓴다. 국적에 관계 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며 서로 어울려 일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일 것은 만일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관계가 나빠져서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3국인 프랑스가 이 댐과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평화의 댐 건설 같은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댐이 무너지거나 수문을 일시에 완전 개방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구아수 폭포의 40배나 되는 물이 밀려내려가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

노스아이레스가 모두 물에 잠겨버리고 만다고 한다. 현재 기술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방비책을 세울 수 없다고 한다. 오직 사람이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만이 그 불행한 사고를 막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이런 멋진 협상이 두 나라의 100년 원한을 극복 하면서 두려워 하는 아르헨티나까지 설득시켜 저 멋진 거대한 댐을 건설해낸 것이다. 노래하는 돌 이파이푸는 댐에 의해 수몰되어 더 이상 노래를 들려주지 못하지만 이파이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삶들이 그 돌보다 더 멋진 노래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어리석은 생각은 FTA(자유무역협정)가 대세를 이뤄가는 이 시대에는 빨리 아주 빨리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 축산인들도 아니, 우리 육계인들만이라도 우리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위대한 사람은 단번에 높은 곳에 뛰어오른 것이 아니다.

동반자들이 밤에 단잠을 잘 때 일어나서 괴로움을 이기고 일에 몰두했던 것이다.

인생은 자고 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데 있다.

- 브라우닝